

2023년 12월 2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120(통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40장 6~24절(구약p.800)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독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얹혀 있으며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20.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21. 그것이 연 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엮드리니
22. 연 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23.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24.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 말씀선포 /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분수를 알고 형편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알고 겸손하게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외면의 모습은 이렇듯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결코 어떠한 거울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외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도, 외면의 모습도, 내면의 영혼에 대한 것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소망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12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무능을 깨닫고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 본문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세상에서 재판받을 때 재판장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도 사람이므로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본질적으로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의로우시므로 모든 판단이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에 항의해서도,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결국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불의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만일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면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14절입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나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

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여 거룩해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찌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내 죄는 사하여 졌다고 선언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죄는 남아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3.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 하나님이 자신이 자연 만물 속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열거하시며 옴의 무능을 증명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이는 옴이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를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 은혜의 방법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의 은혜인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의 역사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도 구원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성도들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적 무능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히12:2).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 이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대신 죄 값을 지불해 주는 대속의 방법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복음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여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15(통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폐 회 / 주기도문